

제2공항 첫 공개토론회... 이견만 확인

어제 제주시 벤처마루서 제1차 공개 토론회
항공수요 예측·공항인프라 규모 등 첨예 논쟁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이 착수된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민 대상 공개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사전타당성 용역이 추진된 이후 5년만에 어렵게 열린 토론회였지만 정부와 반대 측의 이견만 확인된 채 마무리돼 아쉬움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항공수요 예측=반대 "편차 고려해야" vs 정부 "지침에 따른 것"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 위원회는 이날 오후 벤처마루에서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패널은 정부 측에서 송기환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이제운 한국공항공사 신공항계획팀장·전진 국토부 사무관이, 반대 측에서는 문상빈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홍명환 제주도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첨예하게 논쟁한 안건은 '항공수요 예측, 공항인프라 확충 규모 적절성'이다.
장래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의혹 해소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문상빈 위원장은 "사타 용역과 예비타당성 용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밝힌 항공수요 예측이 모두 다르다"며 "편차를 고려해 대안을 판단해야 한다. 4500만명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맞춰 대안을 마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환 본부장은 "수요

예측의 어려움은 안다"면서도 "정해진 법률과 연구 지침의 틀을 벗어난다면 연구에 대한 신뢰성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운 팀장은 "오차범위를 늘리자는 의견은 위험성이 있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연구하는 입장에서 지침을 벗어날 수 없다. 모델을 정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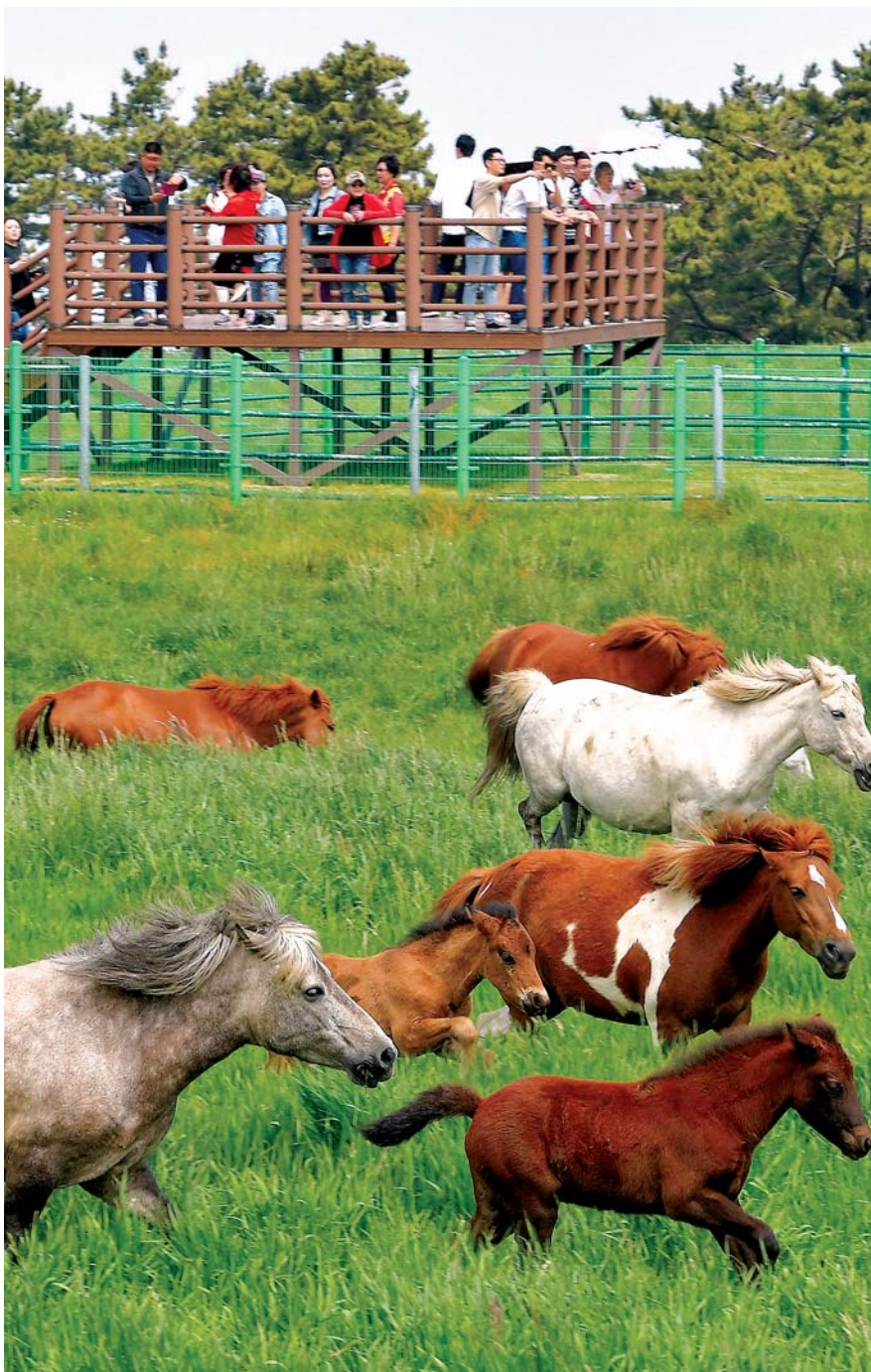
▶ADPi 보고서=정부 "소음문제 반영 안돼" vs 반대 "배제 이유 납득 못해"

지난 10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 수요 예측 및 확충 방안에 대해 하도급 연구를 진행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용역 보고서가 공개됐지만, 공방은 여전히 상충한다.

이제운 팀장은 "ADPi 보고서에서는 19개 권고안이 충족돼야 옵션 1~3안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라며 "특히 ADPi 보고서가 탈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공항에 대한 소음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보고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현 제주공항에서 최대 슬롯 60회에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ADPi 보고서가 있는데 정작 사타용역에는 9조원이 투입되는 바다 매립 공사안만 반영된 점이 가장 의문스럽다"며 "단기 확충방안의 경우 ADPi사에 '제안대로 반영했는지' '제안이 잘못된 것인지' 등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초원 질주하는 조랑말들 초여름 날씨를 보인 15일, 제주시 제주마방목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푸른 들에서 뛰노는 조랑말들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의회 오늘부터 제372회 임시회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 등 안건 심의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사실상 제2공항을 겨냥하고 있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윤희룡 지사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제2공항 찬성측과 경제단체까지 철학을 촉구하고 나서 도의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72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22일까지 7일간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3월 말 보전지역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를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했지만 윤희룡 지사와 제2공항 찬성측 주민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발의를 보류했다. 이후 홍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 등을 통해 원 지사의 반대 발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달 25일에는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

까지 개최하면서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초 개정안에 서명했던 도의원 23명 중 상당수가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이번 발의안에는 12명만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도의회 내부에서도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심의를 앞둔 14일에는 제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6개 경제단체와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를 포함한 7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해 다시 조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1일 심의에 앞서 의원들 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도위 소속 의원 7명 중 3명의 의원만 개정조례안에 동의서명해 위원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회의 중 제주도로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표성준기자

제주 지하수 유역별 총량 관리 도, 지속이용가능량 재평가 '수자원종합계획' 고시

제주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2018-2022 수자원관리종합계획(보안)'을 15일 고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 총 수자원 시설용량은 지하수 5억

6800만㎥(90.5%), 용천수 4700만㎥(7.6%), 기타(빗물, 하수재처리수, 염지하수담수화) 1300만㎥(1.9%)를 포함해 6억2800만㎥이다. 또한 연간 이용량은 지하수 2억4300만㎥

(81%)와 용천수 4300만㎥(14%), 기타 1300만㎥(5%)를 합쳐 2억9900만㎥에 달하고 있다.

연간 수자원 부존량(1998-2017년 조사·관측 자료 활용)은 ▷수문총량 39억5200만㎥(연평균 강수량 2162mm) ▷증발산량 13억7900만㎥(34.9%) ▷직접유출량 9억7000만㎥(24.5%) ▷지하수 함양량 16억400

만㎥(40.6%)이다. 특히 용천수와 빗물 등을 제외한 지하수만의 지속이용가능량은 지하수 함양량의 40.6%인 연간 6억5200만㎥(월 5435만㎥)로 조사됐으며, 이를 토대로 제주도는 16개 유역별 지속이용가능량을 제시해 유역별 총량제로 지하수를 관리할 방침이다.

표성준기자 sjpy@ihalla.com

제26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접수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라환경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한라환경대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환경에 대한 UCC 공모전과 환경퀴즈대회도 함께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시상부문 및 상금
*참가자격: 기업체, 단체, (공)기관, 학교, 교사, 학생,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구분	시상내역	시상내역	시상내역
민간환경대상 시상	대 상 1명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상금 200만원	우수상 1명
민원권 UCC 공모전	대 상 1명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상금 50만원	우수상 1명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한 세부 공적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단, UCC 공모전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을 심사)

시상일 및 장소
2019년 6월 5일(수) / 한라일보사

제출서류
*신청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1부
*홈페이지(www.ihalla.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첨부: 공적 개요 및 증명 자료 원부
*UCC 공모전의 경우 영상물을 저장하여 제출

접수마감 및 문의처
*2019년 5월 24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orca@hallaiboo.co.kr)로 접수
*한라일보 경영기획팀(전화: 750-2523, 750-2540 / 팩스: 750-252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제26회 한라환경대상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환경퀴즈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9년 6월 11일(토) 오후 3시 /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관광 메인무대
*운영방식 = 생활 속의 환경 상식 관련 골든벨 방식
*시상내용 = 대상(1등) 50만원, 최우수(2등) 30만원, 우수(3등) 20만원
*모든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문의 및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748-1021

Jeju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일보

지역스포츠과학센터의 리더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들과 함께하는 동반자

제주스포츠과학센터는 체력측정, 맞춤형 운동처방, 기술 및 역학평가, 스포츠 심리분석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방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들에게 지원해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꿈을 향한 도전,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제주스포츠과학센터
CENTER FOR SPORT SCIENCE IN JEJU

문화체육관광부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